

양돈협회 캠페인

가축분뇨 자원화!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양돈경쟁력 강화하는
전남 영암 지부

취재 - 오유환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한·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2012년부터 해양 배출이 금지되어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리는 등 우리 양돈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가운데 양돈인 스스로의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액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부가 있다. 강대천 지부장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앞장서는 전남 영암지부(지부장 강대천)가 그 주인공들이다.

해양배출 의존 줄이고 자원화에 앞장

농한기인 요즘 영암지부 회원들은 날마다 경작지에 액비 살포하느라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

다. 영암지역은 목포항이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에 해양배출이 저렴하고 용이하지만 영암지부는 지부 회원들 스스로가 해양 배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가축분뇨 자



▲ 영암지부 강대천 지부장은 “해양배출에 가축분뇨 처리를 의존하지 않고 가축분뇨 자원화의 확대를 위해서는 액비 비수기에 액비를 충분히 저장해 요즘과 같은 성수기에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액비저장탱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원화에 솔선하여 앞장서고 있다.

현재 영암지역에서 현재 40여 농가가 약 4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20농가가 지부회원으로 영암지역 사육두수의 60% 가량인 2만5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4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영광지역 가축분뇨량은 하루 344톤(법적 8.6ℓ/일), 실제로는 184톤(실제 4.6ℓ/일) 정도가 발생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분뇨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토양으로 환원되고 있다.

강대천 지부장과 지부회원들은 수년전부터 인근 수도작, 총채보리, 과수재배, 시설채소 재배농가 등 경종농가에 축분액비를 보급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와 기술협력을 통한 토양별, 작물별 특성을 감안한 품질 좋은 액비 살포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 보조금 중단으로 최근 액비의 수요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고품질

의 친환경 액비를 공급한 결과 이제는 영암지역 경종농업과 액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활발한 가축분뇨 자원화의 입지조건

영암군은 지역적으로 인근에 논·밭 등 농경지가 많고 낙농을 통한 초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채보리, 총채벼 등 조사료 재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영암군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동부지역에 간척지가 조성되어 있어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풍부해 가축분뇨 자원화가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양돈농가와 경종농가와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액비살포는 주로 가을 수확 후부터 봄 3~4월까지 이뤄진다. 최근 영암지역에서는 액비 살포가 한창이다.

강대천 지부장은 액비를 이용한 지역의 경종농가에서 점차적으로 액비의 효과가 입증되어 요즘에는 액비를 신청한 경종농가는 많지만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다. 더욱이 액비 살포 이후 일반 작물보다 10~20%의 수확량이 증대하고 미질이 양호하고 윤기가 나는 효과가 뚜렷해 경종농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종농가에서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저감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어 액비의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축분 액비 원활한 공급 위해 대용량 저장조 마련 시급

하지만 영암지역 가축분뇨 자원화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암지부 강대천 지부장은 작

물에 대한 시비철에는 경종농가의 액비 이용이 많아 액비가 모자라는 형편이지만 액비시용을 못하는 비수기에는 액비를 저장할 시설이 없어 자연순환농업에 사용되어야 할 액비를 부득이하게 해양배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는 여름 등 액비 비수기에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가축분뇨 자원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대천 지부장이 운영하는 4천두 규모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연간 액비량이 6,000톤에 이르지만 현재 농장의 액비저장탱크는 1,000톤에 불과해 연간 5,000톤의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즘같은 액비 성수기엔 1,000톤 저장고에 가득 저장중인 액비도 살포 3~4일이면 모두 소진되고 액비가 다시 저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 조갑석 총무는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방침 이후 관련업체들이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인상하고 가축분뇨 반입량을 줄여, 양돈농가들의 부담이 대폭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해양배출 감축이 가축분뇨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정책으로 매년 10% 감소하여 2011년에 전면 중단될 경우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양배출에 가축분뇨 처리를 의존하지 않고 가축분뇨 자원화의 확대를 위해서는 액비 비수기에 액비를 충분히 저장해 요즘과 같은 성수기에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액비저장탱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액비 생산으로 민원 최소화

가축분뇨 자원화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역시 냄새로 인한 민원 문제이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이웃간의 정, 혈연관계 등으로 참아왔던 악취문제가 빈번하게 민원제기가 되면서 축산업 영위를 위협하고 있다.

영암지부 회원들은 “민원이 없으면 악취가 없다.”는 말처럼 인근 주민과 평상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영암지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돈사환경 조성과 경종농가가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액비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액비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 사료에 EM 미생물 제재를 첨가 급여하고 액비 저장조에서 폭기과정을 거쳐 충분히 액비가 부숙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완공으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영암지부는 강대천 지부장을 중심으로 조갑석 총무 등이 중심이 되어 협회 운영을 맡고 있다. 영



암지부는 매달 첫째주 금요일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지부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실시하여 지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과 행사를 검토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열린 월례회에서도 현재 영암군에서 추진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설, 액비유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효과적인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은 지부의 핵심의제이다.

이번 월례회에서도 지난 8년간 추진중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었다. 지난 2002년에 시작된 축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영암군은 85억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선정, 착공에 들어가 곧 완공될 예정이다. 현행 진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영암지부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퇴·액비를 영암동부지역의 간척지에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처리 시설을 통해 액비를 살포할 수 없는 시기에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활용법을 모색중이다.

봉침 요법으로 큰 효과, 항생제 절감과 면역력 향상 큰 도움

영암지부 회원들은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뿐만 아니라 사양관리에서도 친환경 축산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아래 2년 전부터 돼지에 봉침을 시술하고 EM발효제와 자화수를 급여해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청정축산물 생산으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다.

영암지부는 3년전부터 시작한 봉침 요법을 전 회원들에게 보급중이다. 강 지부장은 “돼지에 벌침이 좋은 효과가 있다”며 영암 농업기술센터의 서석봉 박사의 권유로 시작된 봉침요법의 효과에 반신반의했지만 벌침을 사용하고 나서는 항생제



▲ 영암군은 논·밭 등 액비살포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풍부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 안 들어가 안전하고 비용도 줄이고 고기 육질도 좋아져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봉침의 장점을 설명한다.

지난 2003년부터 봉침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강 지부장은 벌침을 이용하면서 돼지 4천마리 사육에 한달 평균 800만원 하던 약품비가 3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방역비 등 소독비용을 제외한 항생제 등 약품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 봉침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질병도 예방되고 면역력과 번식력도 높아져 지부회원들의 수익도 높아졌다. 특히 비용절감 이외에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지부회원과 소비자 모두가 큰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봉침과 유용미생물 등을 활용한 친환경 요법은 지역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안전돼지고기를 출하, 국내 유명백화점과 대형유통마트를 통해 일반 돼지보다 20~30% 높은 가격에 납품되는 등 영암지부의 친환경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해 운영비 절감

이와 더불어 영암지부는 전남도 및 영암군청 등

의 관공서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부 사무실을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 유치하므로써 지부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농장 무인정문소독기 설치사업, 친환경 액비유통 활성화사업, 자화수기 설치사업,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양돈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직접 챙김으로써 지부를 통해 양돈농가들이 골고루 정부지원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악취와 파리발생 저감 효과가 뛰어난 자화수제조기의 효능을 임원진이 직접 검증한 뒤 자화수제조기가 지역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암군에 보조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해 영암지부내 회원농가 모두가 지원 보조를 받아 설치를 완료했다.

무료시식회 및 이웃사랑 실천운동 적극 전개

영암지부는 각종 행사 개최시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양돈인들이 단합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년 왕인문화축제에 맞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고대일본에 천자문과 논어, 도자기술 등을 전수해 아스카문화를 꽃피우게 한 왕인 박사를 기리고 영암의 백제문화와 고대 일본문화의 교류를 기념하는 왕인문화축제를 맞아 4일에 걸쳐 도의원, 시청 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일반시민 등 수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 4월도 시식회를 계획중이다.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영애원, 소로원 등을 방문하여 매년 2회씩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한편 인근 군부대를 찾아 위문하고 돼지고기와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영암군내 4개면에 노인회와 복지회관을 위문하고 매년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내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역봉사에 앞장

영암지부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강대천 지부장이 있다. 강 지부장은 2000년 축산대상에 이어 신지식상(2001년)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국무총리상과 농업인의 날 으뜸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축산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월출산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맡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평소에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강조하는 강 지부장은 평소의 꾸준한 지역사회의 동참과 봉사는 양돈산업의 밑거름이 된다면 회원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이끌고 있다.

“액비유통센터 건립으로 보다 활성화 할 것”

액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을 묻는 질문에 강 지부장은 현재는 액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 왕인문화축제때 김철호 전 영암군수가 돼지고기를 시식하고 있는 모습



▲ 조갑석 총무와 지부 회원들이 돼지고기 무료시식회에 시식될 돼지고기를 구우며 국산돼지고기 홍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



▲ 영암지부 회원들. (사진 왼쪽부터 이광백 회원, 조갑석 총무, 강대천 지부장, 김영순 회원, 이현자 회원, 이명희 회원, 허숙명 회원, 강성갑 회원, 배공휴 회원)

경종농가가 있으면 양돈농가가 개별적으로 액비 운송차량을 통해 직접 액비를 살포하고 있지만 액비유통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경종농가와 양돈농가를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강대천 지부장은 “올해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해 가축분뇨처리 비율을 높일 계획이고 벼, 배추, 초지, 총채보리, 쌀보리, 고구마 등 영암지역 특산물 재배에 믿을 수 있는 액비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받는 영암의 명물이 될 것이라며”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항금돼지해 옷으면 복돼지, 먹으면 힘돼지, 우리 가족과 함께 하면 행운돼지. 행운돼지해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라며 인사하는 강대천 지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엔 우리 양돈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해 보였다. **양동**

전문가 무료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돈장의 고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 ▲ 경영 및 정책 ▲ 수급 및 돈가 전망 ▲ 사료 ▲ 질병 ▲ 사양 ▲ 시설 및 환기 ▲ 분뇨 ▲ 번식 및 육종, 인공수정 ▲ 육가공 및 유통분야 ▲ 세무 등 34명의 분야별 전문가 전문상담

* 전문가 상담코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전문가 상담코너'를 클릭하세요. 양돈농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www.koreapork.or.kr